

The Strategy

투자전략팀 | 리서치본부

→ 2013. 5. 13

Etrade Overview – View & Strategy

2

Sector Strategy

美 벤처자금으로 본 주도주 압축전략

4

Weekly View

엔화 약세에 대한 국내 경기 영향은?

6

Indicator Chaser

12



I. Etrade Overview – View & Strategy

Strategist 신종호 02.3779-8447 | jh.shin@etrade.co.kr
Economist 최광혁 02.3779-8448 | kh.choi@etrade.co.kr

Strategy Call

House View

- KOSPI 5월 랜드: 1,850pt ~ 1,990pt
- Key Word: 선부른 공격보다 반전을 기다리자
- The Call:
 - 1) 국내 신용사이클은 팽창보다 수축국면, 기업들 투자보다 유보상태. Policy Mix의 개선 가능성 요원
 - 2) 미국의 경기 및 이익사이클도 성장의 훠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속도 둔화에 진입
 - 3) 기존 주도주 내 압축전략 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한 선택

Weekly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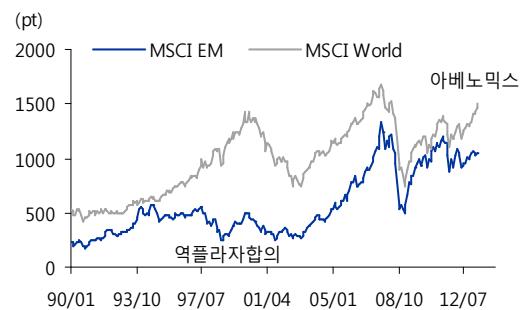
엔화 약세에 대한 국내 경기 영향은?

- 엔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상황은 95년 역플라자합의 이후 달러화의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각국의 정상들이 G20을 통해 엔화약세에 대해서 일정부분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약세 흐름도 비슷
- 일본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내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높음. 과거 추이를 보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투자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왔음. 반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엔저 및 달러강세는 국내 경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 결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점이 중요. 정책적인 내수 부양으로 수출 부진의 효과를 상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겠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나 수출의 절대량이 늘기 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Key of the Week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이머징 주가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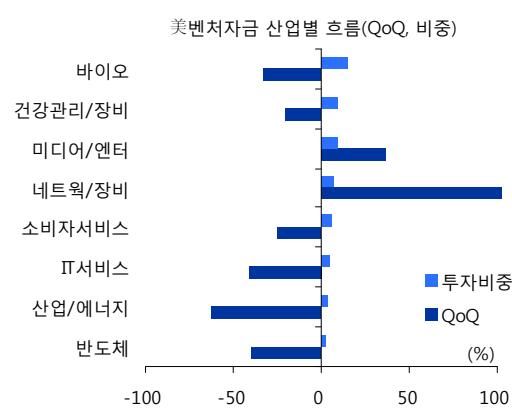
- 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 선진국과 이머징 간의 주가 격차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04년에서 06년 사이 달러화 약세 시점에서는 동행
- 중요한 것은 달러화의 강세기가 도래한 것이냐의 문제. 아직까지 완벽한 강세기의 도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달러화 약세 전환 가능 시점에 KOSPI상승 가능



Sector Strategy

美 벤처자금으로 본 주도주 압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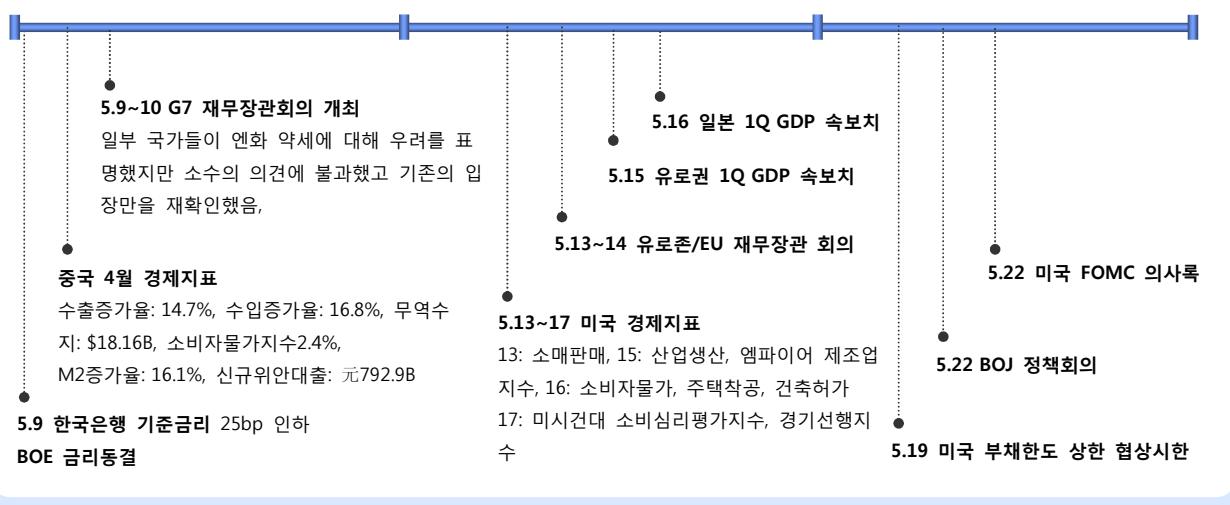
- 美 벤처자금 QoQ(-11.97%), YoY(-6.36%)
- 역신장. 산업별로 바이오/제약, Clean Energy 부문의 하락이 컸던 영향. 반면, 소프트웨어, 미디어/엔터는 각각 QoQ 7.7%, 37% 성장세. 특히, 소프트웨어는 전체 벤처자금의 40%의 높은 투자 비중
- 관련 종목의 움직임 주목, 구글, 넷플릭스 VS. 화이자, 암전
- 관심종목: NHN, SBS, 제일기획, 엔씨소프트



Macro Call

미국 주요 경제지표와 부채한도 상한 협상에 주목

-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반전에 성공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13일부터 거의 매일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19일이 미국 부채한도 상한 협상시한임. 이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시선은 유럽과 중국보다는 미국에 집중될 것



일자	국가	이벤트	기간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
2013/05/13	미국	소매판매(MoM)	4월		-0.3%	-0.4%
	미국	기업재고(MoM)	3월		0.3%	0.1%
	중국	산업생산(YoY)	4월		9.4%	8.9%
	중국	소매판매(YoY)	4월		12.8%	12.6%
	일본	M2 증가율(YoY)	4월		3.1%	3.0%
2013/05/14	유로권	산업생산(MoM)	3월		0.5%	0.4%
2013/05/15	미국	뉴욕 앤파이어 제조업지수	5월	4.00	3.05	
	미국	생산자물가지수(MoM)	4월		-0.6%	-0.6%
	미국	산업생산(MoM)	4월		-0.1%	0.4%
	미국	설비가동률	4월	78.3%	78.5%	
	미국	NHAB 주택시장지수	5월	43	42	
	유로권	GDP(QoQ)	1Q		-0.1%	-0.6%
	일본	3차산업활동지수(MoM)	3월		-0.7%	1.1%
	한국	실업률	4월		3.2%	3.2%
2013/05/16	미국	소비자물가지수(MoM)	4월		-0.3%	-0.2%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주	330K	323K	
	미국	주택착공	4월	973K	1036K	
	미국	건축허가	4월	941K	907K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5월	2.1	1.3	
	일본	GDP(QoQ 연율)	1Q		2.7%	0.2%
2013/05/17	미국	경기선행지수(MoM)	4월		0.2%	-0.1%
	미국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5월	77.9	76.4	

주: K는 천명을 의미함. M: 백만, B: 십억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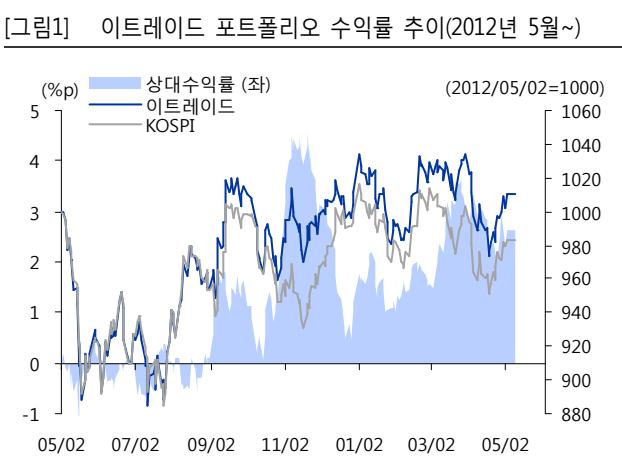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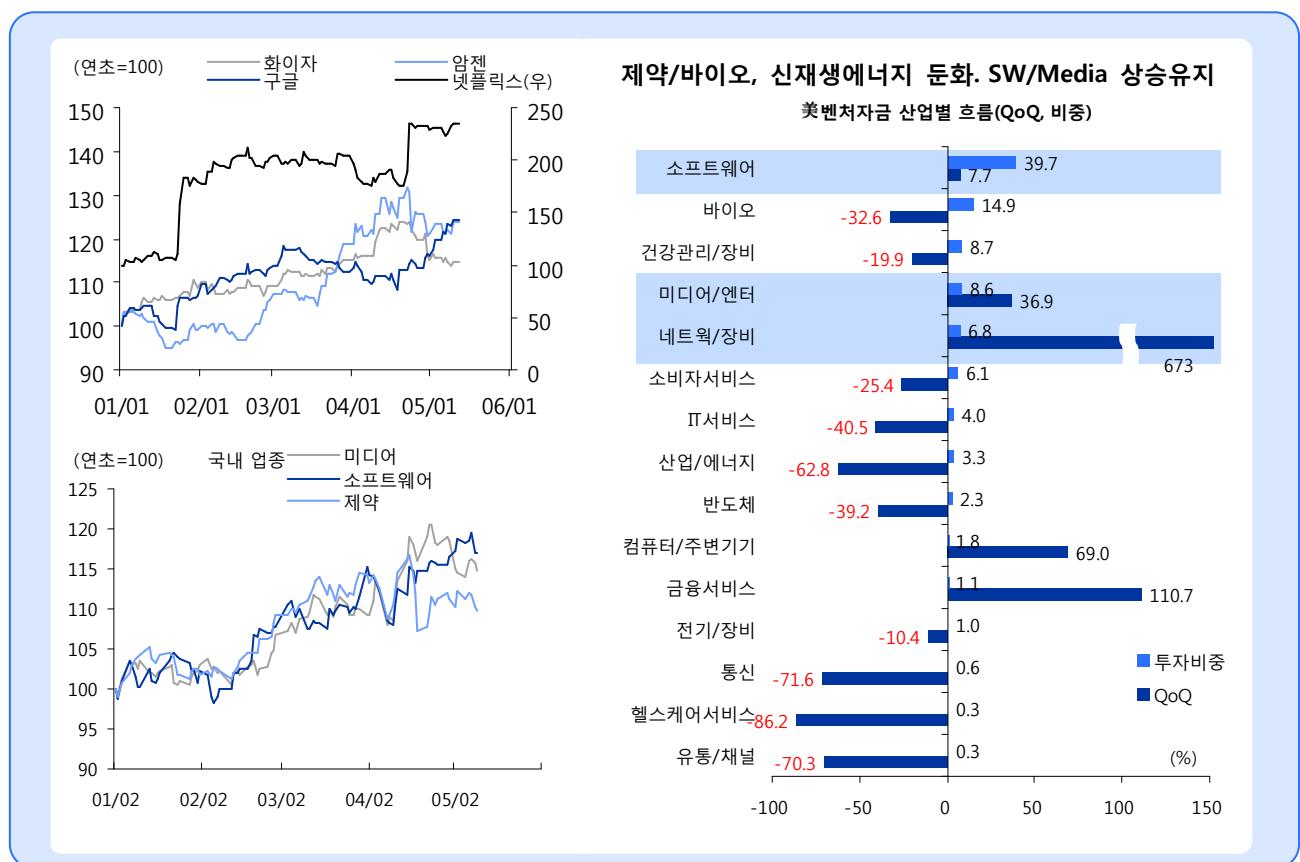
II. Sector Strategy

Strategist 신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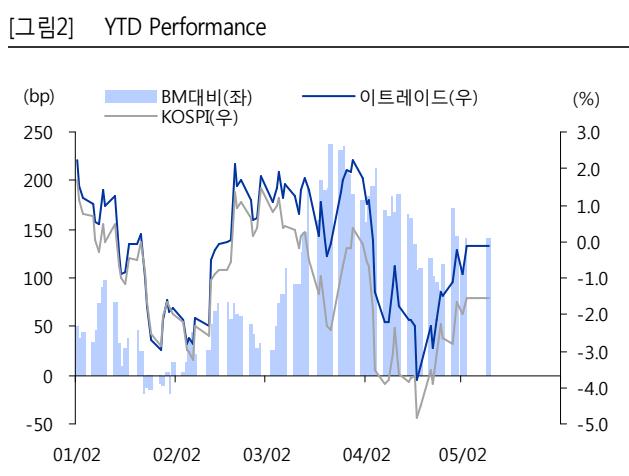
02.3779-8447 | jh.shin@etrade.co.kr

美 벤처자금으로 본 주도주 압축전략

- 美 벤처자금 QoQ(-11.97%), YoY(-6.36%) 역신장. 신성장모델로의 자금유입 속도가 2분기만에 둔화된 것. 산업별로 바이오/제약, Clean Energy 부문의 하락이 커ден 영향. 반면, 소프트웨어, 미디어/엔터는 각각 QoQ 7.7%, 37% 성장세. 특히, 소프트웨어는 전체 벤처자금의 40%의 높은 투자 비중
- 관련 종목의 움직임 주목, 구글, 넷플릭스 VS. 화이자, 암젠 (NHN, SBS, 제일기획, 엔씨소프트)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표1] 이트레이드 Model Portfolio 편입 현황

섹터	코드	종목명	종목수익률(% , %p)			금주 비중(% , %p)			
			편입 이후	BM대비	주간	전주말(B)	제안비중(A)	(A-B)	시장
에너지						1.93	1.93	0.00	3.02
	A096770	SK이노베이션	-13.22	-10.60	3.78	1.93	1.93	0.00	
소재						8.00	7.75	-0.25	9.78
	A051910	LG화학	-19.24	-16.62	3.70	1.54	1.54	0.00	
	A069260	휴켐스	-11.39	-8.77	-1.29	1.57	1.57	0.00	
	A004020	현대제철	-15.39	-12.05	0.53	1.95	1.95	0.00	
	A001430	세아베스틸	0.16	-1.84	2.75	1.39	1.39	0.00	
	A009520	포스코엠텍	5.43	9.46	4.99	1.55	1.30	-0.25	
산업재						12.21	10.96	-1.25	12.10
	A017960	한국카본	13.79	17.13	-3.30	1.73	1.73	0.00	
	A010620	현대미포조선	0.00	2.62	14.93	2.63	2.38	-0.25	
	A042660	대우조선해양	2.95	5.57	6.48	2.68	2.43	-0.25	
	A000720	현대건설	-12.57	-9.95	7.56	2.54	2.04	-0.50	
	A000830	삼성물산	-4.15	-1.53	2.21	2.63	2.38	-0.25	
경기민감재						16.94	16.94	0.00	18.36
	A005380	현대차	-13.50	-10.88	-6.44	3.85	3.85	0.00	
	A011210	현대위아	-17.92	-15.30	-5.65	3.81	3.81	0.00	
	A013570	동양기전	10.38	13.00	0.00	3.16	3.16	0.00	
	A035080	인터파크	29.51	32.13	0.78	3.51	3.51	0.00	
	A051900	LG생활건강	-6.24	-3.62	1.32	1.39	1.39	0.00	
	A093050	LG패션	3.22	2.15	1.26	1.22	1.22	0.00	
필수소비재						5.84	5.84	0.00	5.19
	A001040	CJ	17.72	20.34	0.72	1.82	1.82	0.00	
	A005180	빙그레	-0.83	1.77	-7.75	1.67	1.67	0.00	
	A005990	매일유업	68.32	70.94	2.14	2.35	2.35	0.00	
건강관리						3.68	3.68	0.00	2.98
	A068870	LG생명과학	17.65	20.27	-3.28	2.25	2.25	0.00	
	A100120	뷰웍스	17.57	17.67	4.63	1.43	1.43	0.00	
금융						9.45	9.20	-0.25	11.34
	A105560	KB금융지주	-3.60	-0.60	3.58	2.42	2.42	0.00	
	A139130	DGB금융지주	8.25	8.35	5.70	1.92	1.92	0.00	
	A032830	삼성생명	7.69	11.03	-1.87	2.40	2.40	0.00	
	A071050	한국금융지주	-5.60	-6.66	0.68	2.71	2.46	-0.25	
IT						34.86	36.10	1.25	31.55
	A005930	삼성전자	-3.02	-0.40	-3.84	18.50	19.50	1.00	
	A000660	SK하이닉스	13.01	15.63	-1.52	6.46	6.46	0.00	
	A066570	LG전자	15.69	16.36	-1.77	2.60	2.60	0.00	
	A034220	LG디스플레이	-6.28	-3.66	-1.19	2.39	2.39	0.00	
	A035420	NHN	17.85	19.69	-2.84	2.51	2.76	0.25	
	A022100	포스코 ICT	-3.38	0.66	1.78	1.10	0.00	-1.10	
	A051370	인터플렉스	4.41	5.47	4.41	0.00	1.10	1.10	
	A036570	엔씨소프트	0.00	-1.99	-4.60	1.30	1.30	0.00	
통신						3.99	4.25	0.25	2.72
	A033630	SK브로드밴드	14.10	16.20	-1.12	2.63	2.63	0.00	
	A017670	SK텔레콤	14.67	12.67	1.65	1.37	1.62	0.25	
유저리티						3.10	3.35	0.25	2.96
	A052690	한전기술	5.20	4.14	2.71	1.25	1.25	0.00	

자료: QuantWise,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III. Weekly View

Economist 최광혁

02.3779-8448 | kh.choi@etrade.co.kr

엔화 약세에 대한 국내 경기 영향은?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 추가 상승 여력은?

5월 10일 엔/달러 환율이 101.62엔으로 100엔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초 이후 엔화 약세에 대한 예측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기준점으로서 시장의 관찰대상이 되던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는 시장에 우려를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전주말 KOSPI는 1.75% 하락한 1944.75pt를 기록했고, 니케이225지수는 2.95% 상승하며 14,607.54pt를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선 상황에서 의문점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와 둘째,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인가이다. 두 가지 대답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쩌면 KOSPI에 대한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환율은 결국 각국과 글로벌 경기상황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국내 경제 및 정책의 방향성이 KOSPI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가와 달러의 방향성이 중요

첫째, 엔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엔화 약세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화의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정상들이 G20을 통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약세 흐름도 비슷하다. 엔화 약세의 추세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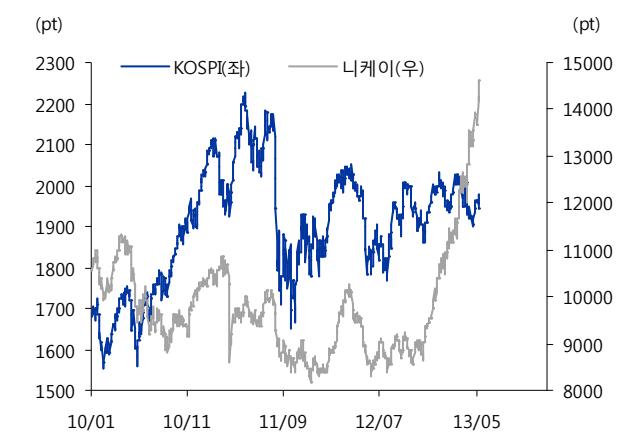
두번째, 일본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내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추이를 보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투자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반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엔저 및 달러 강세는 국내 경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다. 더욱이 무역 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에 대해 가장 높은 수출 경합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적인 내수 부양으로 수출 부진의 효과를 상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겠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나 수출의 절대량이 늘기 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3]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 엔저의 부활 혹은 달러 강세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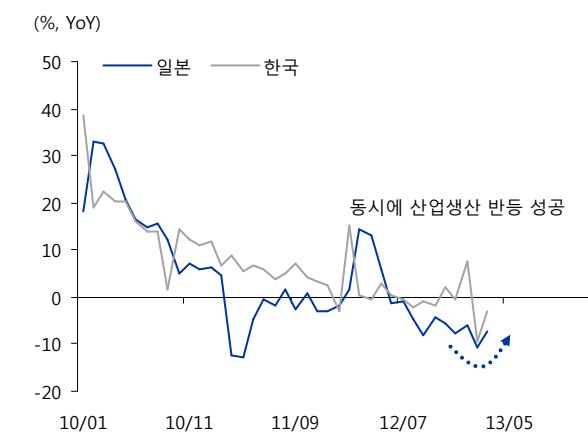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일본 자산 가격 상승은 성공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일본과 한국 산업생산은 동시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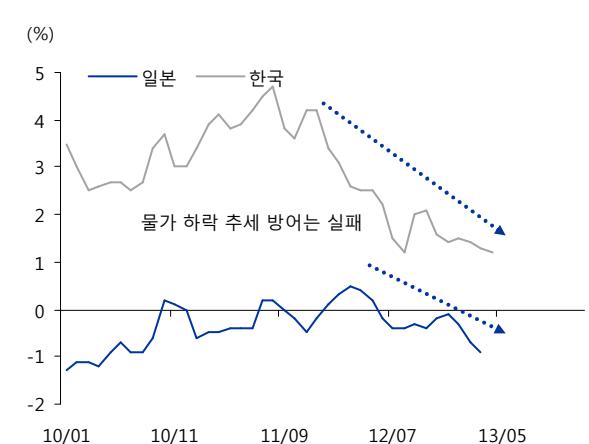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성장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

일본의 엔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 경기의 뚜렷한 회복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물가 상승에 있어서 일본은 2012년 10월 아베노믹스가 대두된 이후 잠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3년 연초 이후 물가의 하락세는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물가지수 역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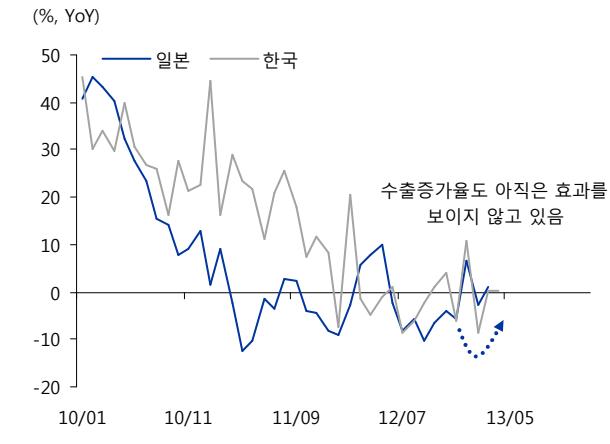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회복도 자신하기는 힘든 모습이다. 최근 일본의 3월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2월 -10.5% 하락에서 3월 -7.3% 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9.36% 에서 -3% 로 개선세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 증가율 개선이 3월을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 수출 증가보다 일본의 수출 증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엔저효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격차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 KOSPI에 비해 Nikkei 225지수의 상승세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엔저 영향이 일본 및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일본 금융시장에 버블 형성으로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림6] 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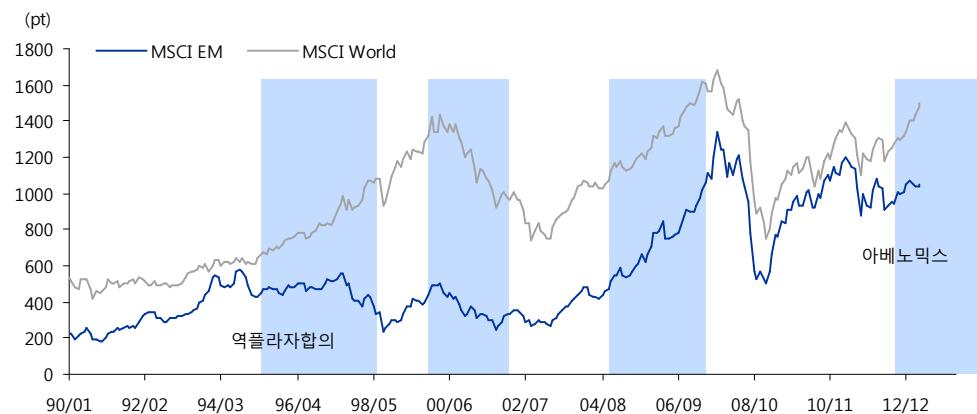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수출에 악영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달러강세 국면에서 이머징과 선진국간의 주가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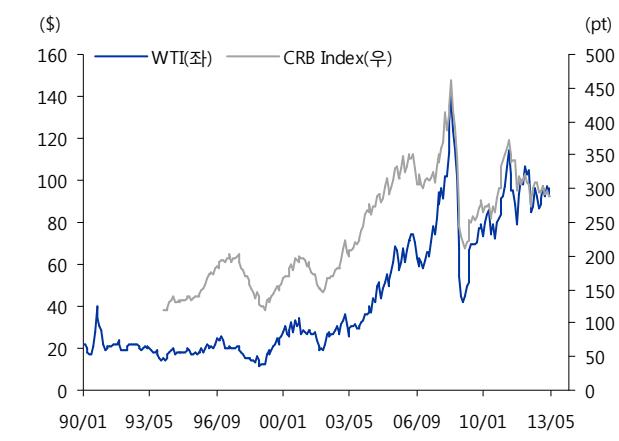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달러화 강세 기조

결국 글로벌 경기 및 통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달러화의 방향성이다. 우리가 엔화의 추가약세를 전망하는 이유 역시 일본 내부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달러강세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이 저성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유럽이 재정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미국은 강력한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경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의 흐름과는 별도로 타 선진국과 미국과의 편디멘탈 격차는 달러화의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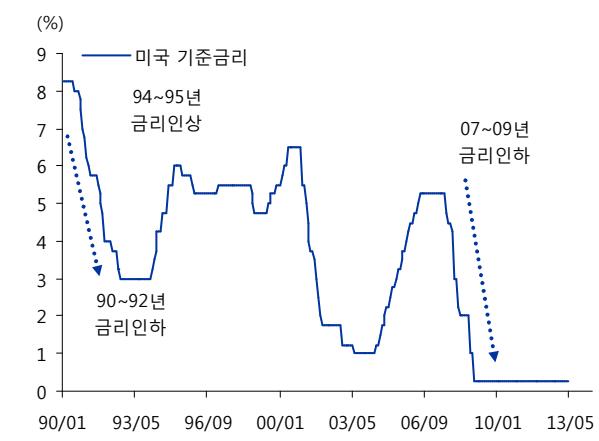
달러화의 강세를 염두에 두면 최근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의 주가 격차도 설명이 된다. 과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시점은 78년과 95년 두 차례 나타났고, 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 주가 추이를 보면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간의 격차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의 달러화 약세 및 엔화 약세 시점에서는 이머징(KOSPI포함)과 선진국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달러화의 강세기가 도래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편디멘탈의 격차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강세기의 도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거 94년 달러화 강세기의 가장 큰 단초중의 하나는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시퀘스터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QE종료를 당장 천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림9] 달러 강세에 따른 상품가격 약세 진행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1995년 역플라자 합의와의 차이는 정책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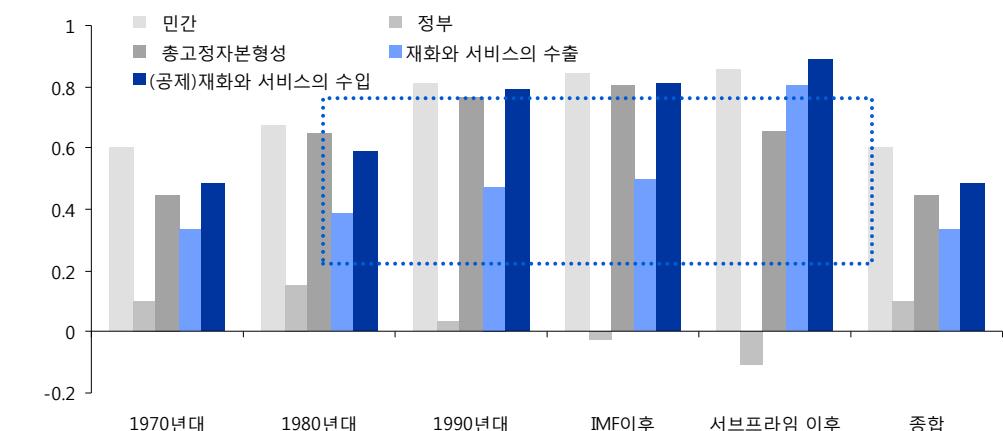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2분기 보다는 3분기에 달러화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

지난 4월 23일 The Strategy [달러강세를 즐기는 선진국, 변화의 시작점은?]을 통해 이미 이미 정 시장의 부진은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왔다. 추가적으로 달러화 강세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것은 중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 대한 시각이다. 7월 참의원 선거에 따른 아베 노믹스의 지속과 미국의 독자적인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2분기 중 달러화의 약세나 엔고현상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기는 힘들다. 2분기 중 미국 경기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과의 편더멘탈 격차를 메우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2013년 5월 9일 The Economy [2분기보다 3분기, 매크로 환경이 좋아 보이는 이유]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완하고 있다. 중국의 중서부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진핑이 내수 중심, 분배 중심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이에 더해 10월 예정된 3중전회의를 통해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새로운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내수 지표의 호전 없이 내수부양과 분배라는 정책적 변화가 지지 받기는 쉽지 않다. 결국 중국은 실질로던 숫자로된 3분기에 성장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그림11] 한국 국내총생산 시기별 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



자료: 한국은행,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달러 강세 혹은 엔화 약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2분기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97년 1월 27%를 차지하던 수출 비중은 2012년 52.9%까지 증가해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특징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 및 투자의 지속적인 비중 감소이다. 역사적으로 70년대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온 것은 수출 증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내수 중심, 서비스업 중심 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분업구조 변화 및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정책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타 아시아 국가들이 중산층의 성장에 따른 내수 시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반면 한국의 내수 경기 회복이 국내 경기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한국 경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대형주의 제한적 움직임으로 정책수혜와 환경변화가 가능한 중소형 섹터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중국의 반등과 절대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2분기 보다는 3분기이다. 글로벌 교역의 절대량이 증가한다면 엔저에도 불구하고 비중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IV. Indicator Chaser

Junior Economist 권규백 02.3779-8885 spri@etrade.co.kr

Global Market Highlight – 주간동락률(5.06~5.10)



주: 신용지표는 CDS Spread, 환율은 달러화 대비 절상 절하율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A. Equity (주간등락률로 내림차순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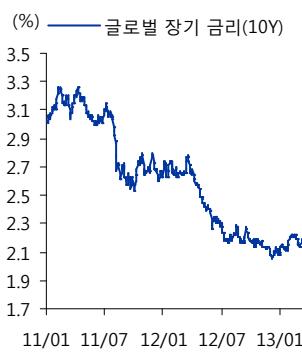
지역	국가 지수	지수(%)				글로벌 주가지수 주간 등락률
		증가(pt)	5D	1M	YTD	
전세계	MSCI World	374	0.9	2.9	10.1	
	MSCI 선진국 지수	1496	0.9	3.0	11.8	
	MSCI 신흥국 지수	1051	0.8	2.6	-0.5	
북미	MSCI North America	1704	1.2	2.8	13.3	
	미국-NASDAQ	3437	1.7	4.2	13.8	
	캐나다-S&P/TSX	12589	1.2	0.4	1.3	
	미국-S&P500	1634	1.2	2.9	14.5	
	미국-Dow Jones	15118	1.0	2.1	15.4	
태평양	MSCI Pacific	139	1.3	4.2	10.0	
	일본-NIKKEI225	14608	6.7	9.9	40.5	
	홍콩-Hang Seng	23321	2.8	5.8	2.9	
	뉴질랜드 NZX50	4653	2.4	5.3	14.4	
	싱가포르-Straits Times	3444	2.2	4.6	8.7	
	호주-S&P/ASX200	5206	1.5	4.8	12.0	
유럽	MSCI Europe	105	1.3	4.0	8.7	
	그리스 ASE	1034	5.2	14.5	13.9	
	핀란드 OMX	6405	3.8	4.7	10.4	
	스위스 SMI	8178	3.0	5.2	19.9	
	이탈리아 FTSE MIB	17284	2.1	8.5	6.2	
	스웨덴 OMX 30	1227	2.0	2.8	11.1	
	독일 DAX 30	8279	1.9	6.0	8.8	
	오스트리아 ATX	2445	1.9	0.2	1.8	
	영국 FTSE 100	6625	1.6	3.7	12.3	
	벨기에 BEL 20	2730	1.2	4.0	10.3	
	프랑스 CAC 40	3954	1.0	5.6	8.6	
	네덜란드 AEX	361	1.0	3.6	5.4	
	아일랜드 ISEQ	3965	0.6	1.8	16.7	
	포르투갈 PSI 20	6276	0.4	5.3	11.0	
	스페인 IBEX 35	8545	0.0	5.0	4.6	
	아시아	MSCI EM ASIA	453	1.6	5.4	1.2
	말레이시아 FTSE KLC	1772	4.6	4.5	4.9	
	인도네시아 JSX	5106	3.7	4.7	18.3	
	태국 SET	1622	2.8	8.9	16.6	
남미	인도 SENSEX 30	20083	2.6	9.1	2.6	
	중국 상해종합	2247	1.9	0.9	-1.0	
	대만 가권지수	8280	1.8	6.8	7.5	
	한국 KOSDAQ	570	0.8	6.5	14.8	
	필리핀 PSEI	7262	0.7	6.6	24.9	
	한국 KOSPI	1945	-1.1	0.5	-2.6	
	MSCI Latin America	3740	-0.7	-3.4	-1.5	
	칠레 SM Select	4320	-0.5	-0.8	0.4	
	브라질 BOVESPA	55108	-0.7	-1.9	-9.6	
동유럽	멕시코 BOLSA	41742	-2.0	-5.9	-4.5	
	아르헨티나 Merval	3713	-4.5	7.2	30.1	
	MSCI EMEA	195	0.3	-0.8	-5.3	
	이집트 Hermes	553	2.2	5.0	0.3	
	폴란드 WSE WIG	44895	2.1	-0.4	-5.4	
	남아공 FTSE/JSE ALL	40232	1.6	3.0	2.5	
	헝가리 Budapest	18503	1.0	1.3	1.8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B. Fixed Income (주간등락률로 내림차순 정렬)

글로벌 금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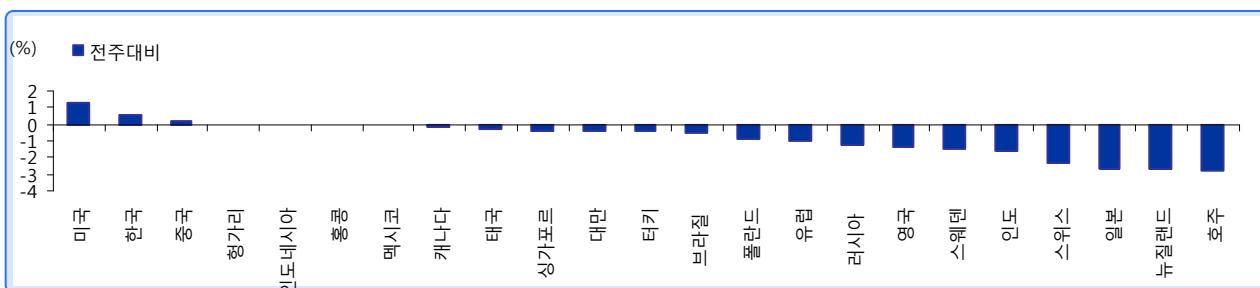
지역	국채(10Y)	기간변동(bp)				글로벌 금리 주간 등락률
		종가(%)	5D	1M	YTD	
북미	미국	1.90	15.9	9.4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대비(단기금리, 3Y) ■ GDP 가중평균 단기금리
	캐나다	1.89	11.8	8.1	8.9	
태평양	호주	3.23	19.6	-5.1	-3.8	
	뉴질랜드	3.33	18.0	-4.4	-21.4	
	홍콩	0.99	14.2	0.5	36.4	
	일본	0.70	13.1	11.2	-9.5	
	싱가포르	1.47	9.0	6.0	17.0	
유럽	유로존	1.38	14.0	7.6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대비(단기금리, 3Y) ■ GDP 가중평균 단기금리
	영국	1.89	16.5	10.7	6.2	
	스페인	4.20	16.3	-43.7	-106.3	
	덴마크	1.51	14.7	2.4	44.6	
	독일	1.38	14.0	7.6	6.4	
	프랑스	1.96	13.4	8.7	-4.1	
	오스트리아	1.78	13.1	11.3	2.9	
	핀란드	1.52	12.9	0.8	-0.7	
	벨기에	2.08	12.6	-2.7	2.2	
	네덜란드	1.70	11.8	-5.2	20.4	
	스웨덴	1.80	11.1	6.5	25.9	
	이탈리아	3.89	7.1	-41.9	-60.4	
	노르웨이	2.07	5.2	-8.0	-7.0	
	스위스	0.62	4.3	-6.7	9.3	
	아일랜드	4.40	0.0	0.0	-12.4	
	포르투갈	5.45	-5.2	-94.9	-156.1	
	그리스	9.61	-18.3	-166.4	-228.8	
아시아	한국	2.87	13.0	8.0	-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대비(장기금리, 10Y) ■ GDP 가중평균 장기금리
	대만	1.21	3.0	-7.2	3.9	
	중국	3.41	-3.0	-9.0	-18.0	
	태국	3.32	-4.4	-10.5	-19.1	
	인도네시아	5.45	-15.2	-14.5	26.0	
	인도	7.59	-16.2	-30.7	-40.7	
	말레이시아	3.18	-20.2	-22.3	-32.5	
	필리핀	3.20	-23.1	-33.5	-120.0	
	남미	9.76	26.3	17.1	59.6	
동유럽	멕시코	4.54	-0.3	-13.8	-8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대비(장기금리, 10Y) ■ GDP 가중평균 장기금리
	헝가리	5.09	14.0	-70.0	-102.0	
	폴란드	3.15	1.0	-37.8	-58.9	
	터키	6.22	-5.0	-61.0	-45.0	
러시아	러시아	2.86	-8.1	-11.6	11.2	

주1: 글로벌 금리는 각국의 국채금리를 세계 GDP비율로 가중평균한 값. 주2: 아일랜드는 9년물 금리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 FX (주간등락률로 내림차순 정렬)

글로벌 환율 주간 등락률



지역	환율	기간수익률(%: +: 절상, -: 절하)			
		증가	5D	1M	YTD
북미	달러화 지수	83.143	1.24	0.74	4.27
	캐나다 달러/달러	1.01	-0.20	0.41	-1.67
태평양	원/엔	10.888	1.76	4.37	11.32
	홍콩 달러/달러	7.761	-0.03	0.03	-0.13
	싱가포르 달러/달러	1.238	-0.35	-0.02	-1.41
	엔/달러	101.62	-2.66	-1.84	-17.21
	달러/뉴질랜드 달러	0.830	-2.71	-3.19	0.30
	달러/호주달러	1.003	-2.85	-4.91	-3.56
유럽	달러/유로	1.299	-0.95	-0.62	-1.63
	덴마크 크로네/달러	5.740	-0.98	-0.61	-1.58
	달러/파운드	1.536	-1.39	0.16	-5.48
	스웨덴 크로나/달러	6.599	-1.43	-3.17	-1.49
	스위스 프랑/달러	0.957	-2.29	-2.59	-4.51
아시아	원/달러	1091.0	0.56	3.94	-1.91
	위안/달러	6.1417	0.24	0.84	1.54
	인도네시아 루피아/달러	9737	-0.02	-0.46	0.59
	태국 바트/달러	29.780	-0.27	-2.55	2.65
	대만 달러/달러	29.640	-0.36	1.07	-1.99
	인도 루피/달러	54.800	-1.60	-0.50	-0.21
남미	멕시코 페소/달러	12.085	-0.10	0.18	6.25
	브라질 혼알/달러	2.020	-0.57	-2.41	1.52
	아르헨티나 페소/달러	5.228	-0.58	-1.73	-6.37
동유럽	헝가리 포린트/달러	225.760	-0.01	0.61	-2.35
	터키 리라/달러	1.801	-0.37	-0.68	-0.90
	폴란드 줄로티/달러	3.189	-0.90	-1.70	-3.36
	러시아 루블/달러	31.421	-1.20	-1.76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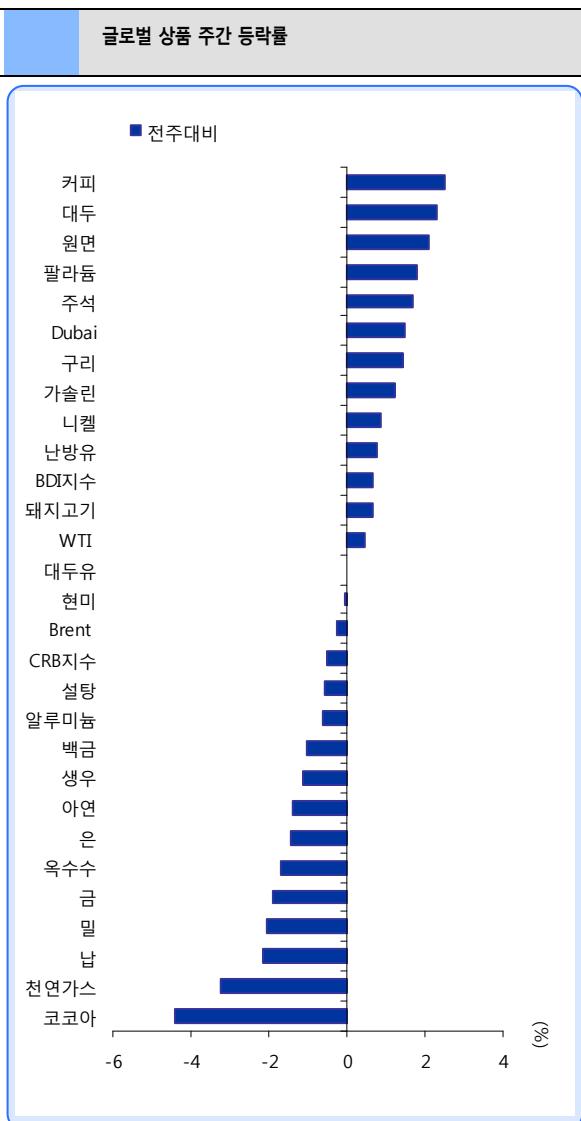
주요국 환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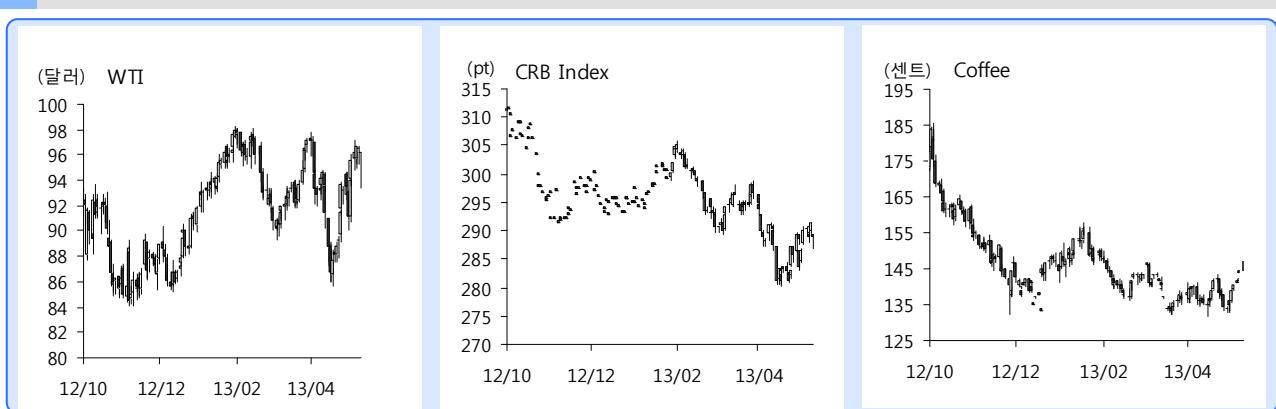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D. Commodity (주간등락률로 내림차순 정렬)

상품	상품명	기간수익률(%)			
		종가	5D	1M	YTD
지수	BDI index	884.00	0.68	2.91	26.47
	S&P Goldman Sachs CI	4718.30	-0.31	-1.10	-3.49
	Rogers International CI	3576.29	-0.43	-1.40	-3.35
	CRB Index	288.68	-0.51	-0.73	-2.15
	Dow Jones UBS CI	265.57	-0.88	-2.28	-5.10
에너지	Dubai Crude Oil Spot price(\$/bbl)	101.52	1.48	-2.06	-4.83
	RBOB Gasoline(\$/gal)	286.03	1.24	-0.17	1.72
	Heating Oil(\$/bbl)	290.62	0.76	-1.41	-4.56
	WTI Crude Oil(\$/bbl)	96.04	0.45	1.48	4.60
	Brent Crude Oil(\$/bbl)	103.91	-0.27	-1.78	-6.48
	Natural Gas(\$/MMbtu)	3.91	-3.24	-4.28	16.68
귀금속	Palladium(\$/T oz)	705.70	-1.79	-2.10	0.33
	Platinum(\$/T oz)	1486.0	-1.01	-2.83	-3.42
	Silver(\$/T oz)	23.63	-1.43	-14.54	-21.68
	Gold(\$/T oz)	1436.60	-1.88	-7.81	-14.27
비철금속	Tin 3M(\$/MT)	20825.0	1.71	-8.96	-11.0
	Copper 3M(\$/MT)	7375.0	1.44	-2.64	-7.01
	Nickel 3M(\$/MT)	15360.0	0.89	-4.30	-9.96
	Aluminum 3M(\$/MT)	1870.0	-0.64	-2.09	-9.79
	Zinc 3M(\$/MT)	1859.0	-1.38	-2.67	-10.63
	Lead 3M(\$/MT)	1994.0	-2.16	-4.59	-14.42
곡물	Soybeans(t/bu)	1488.25	2.29	6.86	4.90
	Soybean Oil(\$/lbs)	49.17	0.02	-1.72	0.02
	Rough Rice(\$/bu)	15.20	-0.03	-3.06	2.25
	Corn(\$/bu)	687.75	-1.68	5.97	-1.50
	Wheat(\$/bu)	696.75	-2.04	0.00	-10.44
소프트	Coffee "C"(\$/lbs)	143.80	2.49	5.70	0.00
	Cotton(\$/lbs)	86.48	2.08	1.30	15.09
	Sugar #11(\$/lbs)	17.43	-0.57	-2.63	-10.66
	Cocoa(\$/MT)	2298.0	-4.41	3.79	2.77
축산물	Lean Hogs(\$/lbs)	92.0	0.66	13.27	7.32
	Live Cattle(\$/lbs)	120.45	-1.13	-3.85	-7.27



주요 상품 변동



주: bbl.=Barrels, Mmbtu=Million British Thermal Units, gal.=Gallons, oz.=Troy Ounces, MT=Metric Tons, lb.=Pounds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신종호, 권구백)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